

# 2026년 2월 신차등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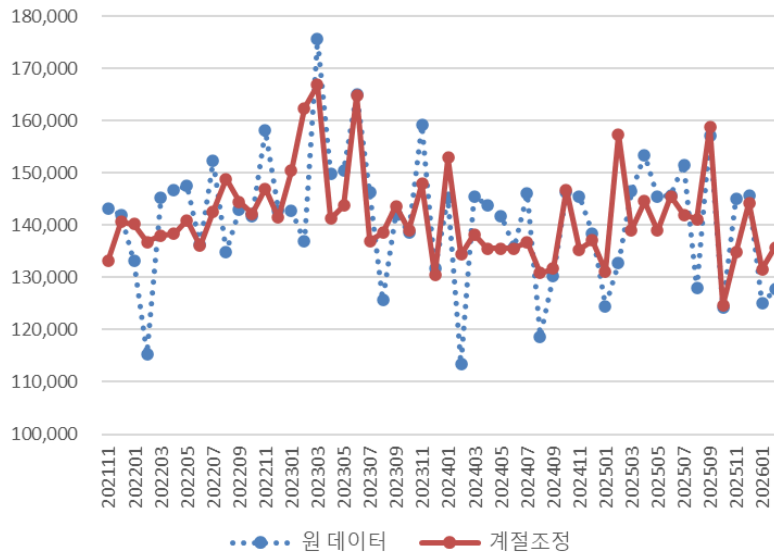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

## 2026년 2월 한국 신차등록 현황 개요

2월 신차등록은 127,721대로써 전월대비 2.2% 증가하였다. 계절조정된 신차등록대수는 135,712대로써 3.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는 각각 3.8%, 13.79% 감소하여 2월의 증가가 판매 회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침체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신차 등록대수의 신차 등록대수의 계절조정된 값을 보여준다. 모든 수치는 승용과 상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lt;그림 1&gt; 신차등록 월별 추세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1>은 2026년 2월의 신차등록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신차는 전월 대비 2.1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감소하였다. 신차 수요가, 적은 영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으로 1월보다 2월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의 증가가 특별한 추세적 특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산차는 전월 및 전월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 신차가 전월 대비 24.05% 증가, 전년 동기 대비는 26% 이상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의 증가세는 놀랄만하다. 전월대비 526%, 전년동기 대비 169% 증가하면서 탄탄히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하이브리드 세그먼트는 전월대비 18.59%, 전년동기대비 10.20% 각각 감소하며 다소 숨고르기하는 모양새다.

&lt;표 1&gt; 2026년 2월 자동차 거래 개요

	전체	국산	수입	전기차 부문	
				EV	HEV
2월 신차 등록	127,721	98,684	29,037	36,325	40,498
전월대비%	2.19	-2.85	24.05	526.19	-18.59
전년동월대비%	-3.80	-10.20	26.99	169.45	-10.20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lt;표 2&gt; 2026년 2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국산)

순위	모델명	12월	01월	02월	평균가격
1	쏘렌토 (HEV)	6,081	6,693	5,580	41,958,746
2	아반떼 (ICE)	5,028	4,697	3,398	21,970,100
3	EV3 (EV)	182	140	3,150	43,482,222
4	EV5 (EV)	189	106	2,927	47,609,122
5	카니발 (HEV)	3,611	4,305	2,825	46,744,531
6	스포티지 (ICE)	5,112	4,161	2,816	32,210,831
7	레이 (ICE)	4,100	4,820	2,798	17,071,229
8	G80 (ICE)	3,592	2,743	2,703	60,407,954
9	아이오닉5 (EV)	165	50	2,682	50,601,752
10	쏘나타 (ICE)	2,897	2,670	2,497	30,334,401
11	팰리세이드 (HEV)	4,308	3,541	2,432	56,090,913
12	GV70 (ICE)	3,449	2,658	2,247	53,628,171
13	그랜저 (HEV)	6,009	3,567	2,227	43,889,942
14	싼타페 (HEV)	2,929	2,208	2,104	40,710,266
15	그랜저 (ICE)	4,449	3,112	2,030	38,078,867
16	코나 (ICE)	2,091	2,147	1,971	26,278,031
17	EV4 (EV)	120	64	1,947	43,918,336
18	쏘렌토 (ICE)	3,109	2,299	1,905	38,641,155
19	GV80 (ICE)	2,697	2,270	1,748	70,586,041
20	투싼 (ICE)	2,553	2,456	1,701	29,089,536
21	K5 (ICE)	2,102	2,588	1,661	26,105,057
22	아이오닉 9 (EV)	165	65	1,551	71,080,658
23	니로 (HEV)	1,334	1,778	1,462	27,263,133
24	스포티지 (HEV)	2,566	2,498	1,462	36,372,572
25	투싼 (HEV)	2,336	2,047	1,453	33,505,299
26	아이오닉6 (EV)	29	43	1,413	50,644,515
27	모닝 (ICE)	1,303	2,109	1,399	15,557,184
28	셀토스 (ICE)	5,011	4,335	1,271	26,845,319
29	KOLEOS (HEV)	2,456	1,764	1,195	39,564,770
30	팰리세이드 (ICE)	1,086	1,596	1,176	50,149,320
Top 30 총 등록대수		81,059	73,530	65,731	
가중평균 가격 (천원)		38,313	37,115	40,480	
매출액 (10억원)		3,106	2,729	2,661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정보협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2>는 2026년 2월 국산 신차 판매 상위 30개 모델을 보여준다. 국산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과 HEV/EV가 각각 약 50%씩을 차지하는 가운데,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반면, 12월 2위였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월 7위로 하락한 데 이어 2월에는 13위까지 내려앉으며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그랜저 내연기관 모델 역시 15위에 그쳐, 내연기관과 HEV를 합산하더라도 1위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Top 5 모델 중 아반떼가 유일한 내연기관 차량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동안 내연기관 중심이었던 국내 신차 시장이 점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가격대별로 뚜렷한 수요 군집이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Top 5 모델의 평균 가격은 아반떼를 제외하면 모두 4천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차량 가격대가 약 4천만 원대임을 시사한다. 한편, 2천만 원대 가격으로 유일하게 Top 5에 포함된 아반떼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그리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요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 신차 Top 30의 가중평균 가격은 1월 약 3,700만 원대에서 2월 약 4,000만 원대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판매 물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평균가격(6500만원대) 유지에 다른 가격 폭 축소와 2월의 짧은 영업일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2월 기준 수입 신차 판매 상위 30개 모델을 보여준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 X4 xDrive를 제외한 Top 30 전 모델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로 구성되며, 전동화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신차와 유사한 4천만 원대 가격대로 출시된 테슬라 Model Y가 5,275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Model Y Long Range까지 포함할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기 물량 공급 및 운영 프로세스 정착 과정에서 출고 지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월 들어 공급과 운영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화 약세 환경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테슬라의 시장 침투 범위는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측면에서, 수입차 시장은 Top 30 기준 평균 가격이 6,50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국산차와의 가격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2월 수입차 판매는 12월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총 매출 역시 1조 원을 상회하며 국산차 매출과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표 3> 2026년 2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수입차)**

순위	모델명	12월	01월	02월	평균가격
1	Model Y Premium RWD (EV)	-	1,135	5,275	46,205,573
2	Model Y Premium Long Range AWD (EV)	-	425	1,740	55,617,184
3	BMW 520i (HEV)	1,110	1,162	1,067	61,307,966
4	SONATA (ICE)	1,205	1,330	1,059	23,694,901
5	Mercedes-Benz E 200 (HEV)	1,919	1,209	980	60,679,286
6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1,280	783	851	76,017,274
7	BMW X3 (HEV)	585	690	643	65,508,398
8	BYD SEALION 7 (EV)	642	656	621	40,559,742
9	BMW 530i xDrive (HEV)	607	532	481	73,431,393
10	VOLVO XC60B5 AWD (HEV)	661	377	383	65,277,023
11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488	395	382	70,728,534
12	BMW 320i (HEV)	481	400	371	48,114,016
13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252	234	357	106,663,025
14	Lexus ES300h (HEV)	722	514	357	62,587,395
15	ID.4 Pro (EV)	-	10	353	45,873,938
16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195	160	326	96,613,804
17	BMW 740i xDrive (HEV)	250	243	314	135,174,522
18	BMW X5 xDrive40i (HEV)	282	303	312	109,698,077
19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EV)	-	-	311	49,244,695
20	BMW X7 xDrive40i (HEV)	303	300	289	129,635,986
21	Lexus NX350h (HEV)	4	734	278	61,279,856
22	Mercedes-Benz GLC 300 4MATIC Coupe (HEV)	427	290	274	72,936,861
23	Model 3 RWD (EV)	340	-	274	38,359,124
24	Toyota CAMRY (HEV)	234	101	252	46,249,603
25	BMW i5 eDrive40 (EV)	217	110	247	74,948,988
26	Model 3 Performance (EV)	-	21	242	56,052,893
27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178	220	238	111,009,244
28	BMW X4 xDrive20i (ICE)	311	208	192	61,691,667
29	Volvo XC40B4 AWD (HEV)	297	167	190	48,878,421
30	BMW 740d xDrive (HEV)	102	199	186	121,364,516
Top 30 총 등록대수		13,092	11,773	13,570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65,106	65,383	65,062	
Top 30 매출액 (10억원)		852	822	1,127	

※ 쏘나타 (ICE)는 중국산 LPG이며, 수입차 합계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협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4>는 지역별 국산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제시한다. 전체 Top 30 판매 물량 중 수도권이 39.1%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26.9%와 13.0%로 그 뒤를 잇는 구조를 보인다. 특히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확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호남권 역시 두 자릿수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충청권은 10.9%를 기록하며 호남권과의 격차를 점차 좁히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해 오던 제주도는 7.8%로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된 모습이 관찰된다.

판매 비중의 패턴을 살펴보면, 지역별 선호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하되 과거 대비 그 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에서 무늬로 표시된 부분은 각 지역별 평균 판매 비중을 상회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지역별로 특정 차종이 집중되는 군집적 패턴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종별 수요가 여러 지역에 걸쳐 보다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4> 2026년 2월 국산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쏘렌토 (HEV)	2,568	1,343	470	786	121	292	46.0	24.1	8.4	14.1	2.2	5.2
2	아반떼 (ICE)	1,163	913	264	607	55	396	34.2	26.9	7.8	17.9	1.6	11.7
3	EV3 (EV)	1,045	759	574	333	54	385	33.2	24.1	18.2	10.6	1.7	12.2
4	EV5 (EV)	856	732	575	400	70	294	29.2	25.0	19.6	13.7	2.4	10.0
5	카니발 (HEV)	1,229	717	223	434	48	174	43.5	25.4	7.9	15.4	1.7	6.2
6	스포티지 (ICE)	1,238	738	262	395	85	98	44.0	26.2	9.3	14.0	3.0	3.5
7	레이 (ICE)	1,177	743	221	414	66	177	42.1	26.6	7.9	14.8	2.4	6.3
8	G80 (ICE)	1,108	729	155	355	42	314	41.0	27.0	5.7	13.1	1.6	11.6
9	아이오닉5 (EV)	659	982	570	344	68	59	24.6	36.6	21.3	12.8	2.5	2.2
10	쏘나타 (ICE)	1,149	592	273	275	86	122	46.0	23.7	10.9	11.0	3.4	4.9
11	팰리세이드 (HEV)	1,094	657	196	199	27	259	45.0	27.0	8.1	8.2	1.1	10.6
12	GV70 (ICE)	1,028	548	177	173	49	272	45.7	24.4	7.9	7.7	2.2	12.1
13	그랜저 (HEV)	953	595	143	335	30	171	42.8	26.7	6.4	15.0	1.3	7.7
14	싼타페 (HEV)	877	655	152	215	50	155	41.7	31.1	7.2	10.2	2.4	7.4
15	그랜저 (ICE)	811	535	155	294	37	198	40.0	26.4	7.6	14.5	1.8	9.8
16	코나 (ICE)	754	542	210	288	83	94	38.3	27.5	10.7	14.6	4.2	4.8
17	EV4 (EV)	582	597	359	280	48	81	29.9	30.7	18.4	14.4	2.5	4.2
18	쏘렌토 (ICE)	786	474	205	265	39	136	41.3	24.9	10.8	13.9	2.0	7.1
19	GV80 (ICE)	728	454	101	149	30	286	41.6	26.0	5.8	8.5	1.7	16.4
20	투싼 (ICE)	611	530	159	223	58	120	35.9	31.2	9.3	13.1	3.4	7.1
21	K5 (ICE)	767	355	197	193	24	125	46.2	21.4	11.9	11.6	1.4	7.5
22	아이오닉 9 (EV)	598	469	233	145	32	74	38.6	30.2	15.0	9.3	2.1	4.8
23	니로 (HEV)	664	261	111	263	28	135	45.4	17.9	7.6	18.0	1.9	9.2
24	스포티지 (HEV)	630	405	120	215	26	66	43.1	27.7	8.2	14.7	1.8	4.5
25	투싼 (HEV)	511	426	115	263	24	114	35.2	29.3	7.9	18.1	1.7	7.8
26	아이오닉6 (EV)	316	501	368	165	44	19	22.4	35.5	26.0	11.7	3.1	1.3
27	모닝 (ICE)	444	286	147	326	61	135	31.7	20.4	10.5	23.3	4.4	9.6
28	셀토스 (ICE)	429	360	123	135	32	192	33.8	28.3	9.7	10.6	2.5	15.1
29	KOLEOS (HEV)	617	311	135	80	23	29	51.6	26.0	11.3	6.7	1.9	2.4
30	팰리세이드 (ICE)	448	337	120	112	43	116	38.1	28.7	10.2	9.5	3.7	9.9
산술 평균 비중							39.1	26.9	10.9	13.0	2.3	7.8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협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lt;표 5&gt; 2026년 2월 수입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Model Y Premium RWD (EV)	498	2,644	61	52	4	2,016	9.4	50.1	1.2	1.0	0.1	38.2
2	Model Y Premium Long Range AWD (EV)	292	856	12	22	4	554	16.8	49.2	0.7	1.3	0.2	31.8
3	BMW 520i (HEV)	390	560	11	77	10	19	36.6	52.5	1.0	7.2	0.9	1.8
4	SONATA (ICE)	573	259	92	89	35	11	54.1	24.5	8.7	8.4	3.3	1.0
5	Mercedes-Benz E 200 (HEV)	354	470	65	62	16	13	36.1	48.0	6.6	6.3	1.6	1.3
6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307	425	51	42	12	14	36.1	49.9	6.0	4.9	1.4	1.6
7	BMW X3 (HEV)	279	309	4	38	6	7	43.4	48.1	0.6	5.9	0.9	1.1
8	BYD SEALION 7 (EV)	218	297	31	52	13	10	35.1	47.8	5.0	8.4	2.1	1.6
9	BMW 530i xDrive (HEV)	204	227	5	39	2	4	42.4	47.2	1.0	8.1	0.4	0.8
10	VOLVO XC60B5 AWD (HEV)	194	124	14	32	12	7	50.7	32.4	3.7	8.4	3.1	1.8
11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150	182	17	20	4	9	39.3	47.6	4.5	5.2	1.0	2.4
12	BMW 320i (HEV)	160	191	-	12	2	6	43.1	51.5	0.0	3.2	0.5	1.6
13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93	218	14	12	5	15	26.1	61.1	3.9	3.4	1.4	4.2
14	Lexus ES300h (HEV)	96	203	26	22	6	4	26.9	56.9	7.3	6.2	1.7	1.1
15	ID.4 Pro (EV)	168	62	70	37	10	6	47.6	17.6	19.8	10.5	2.8	1.7
16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100	190	9	12	6	9	30.7	58.3	2.8	3.7	1.8	2.8
17	BMW 740i xDrive (HEV)	112	168	4	28	-	2	35.7	53.5	1.3	8.9	0.0	0.6
18	BMW X5 xDrive40i (HEV)	132	148	1	12	4	15	42.3	47.4	0.3	3.8	1.3	4.8
19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EV)	7	157	6	4	1	136	2.3	50.5	1.9	1.3	0.3	43.7
20	BMW X7 xDrive40i (HEV)	116	153	2	15	2	1	40.1	52.9	0.7	5.2	0.7	0.3
21	Lexus NX350h (HEV)	76	164	14	18	4	2	27.3	59.0	5.0	6.5	1.4	0.7
22	Mercedes-Benz GLC 300 Coupe (HEV)	107	130	15	10	6	6	39.1	47.4	5.5	3.6	2.2	2.2
23	Model 3 RWD (EV)	24	131	2	-	-	117	8.8	47.8	0.7	0.0	0.0	42.7
24	Toyota CAMRY (HEV)	125	92	14	19	-	2	49.6	36.5	5.6	7.5	0.0	0.8
25	BMW i5 eDrive40 (EV)	93	132	3	14	4	1	37.7	53.4	1.2	5.7	1.6	0.4
26	Model 3 Performance (EV)	53	122	1	1	1	64	21.9	50.4	0.4	0.4	0.4	26.4
27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102	123	-	9	1	3	42.9	51.7	0.0	3.8	0.4	1.3
28	BMW X4 xDrive20i (ICE)	77	93	6	11	2	3	40.1	48.4	3.1	5.7	1.0	1.6
29	Volvo XC40B4 AWD (HEV)	104	58	5	11	9	3	54.7	30.5	2.6	5.8	4.7	1.6
30	BMW 740d xDrive (HEV)	62	107	2	15	-	-	33.3	57.5	1.1	8.1	0.0	0.0
산술 평균 비중								35.9	47.6	3.5	6.1	1.3	6.3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5>는 지역별 수입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제시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Top 30 전체 물량 기준으로 영남권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판매가 5,259대(36.1%)에 그친 반면, 영남권은 6,882대(48.3%)를 기록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소비 수요뿐만 아니라, 다수의 캐피탈사가 영남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등록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산할 경우 전체 수입차 판매 물량의 83.5%가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중도는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분산된 판매 구조를 보이는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즉, 수입차 시장은 특정 지역에 수요와 거래가 집약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물류, 금융,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국산차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구조는 향후 수입차 브랜드의 유통 전략뿐 아니라, 캐피탈사의 영업 거점 설정, 가격 정책, 프로모션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2월 신차등록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며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적으로 2월이 1월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반등은 추세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변동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국산차 부진과 수입차 및 전기차의 약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산차는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전월 대비 500%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안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며, 전동화 내에서도 세그먼트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차종별로는 국산차 시장에서 내연기관과 HEV/EV가 약 50:50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Top 5 중 내연기관 차량이 아반떼 한 모델에 그쳤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는 국내 시장의 중심축 또한 점진적으로 전동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가격대별로 4천만 원대 중심의 주력 수요군과 2천만 원대 가성비 수요군이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 양극화에 기반한 수요 군집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전동화 전환 속도가 국산차 대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모델 중심의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4천만 원대 가격으로 포지셔닝된 모델이 전체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 시장까지

직접적으로 잠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차 평균 가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 시장 간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수입차 수요 확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국산차가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수입차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판매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영남권이 수입차 최대 시장으로 나타난 점은 소비 수요뿐 아니라 금융·유통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역 편중은 향후 수입차 브랜드 및 캐피탈사의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국내 신차 시장은 ① 전반적 수요 둔화 속 구조적 전환 진행, ② 전동화 가속과 세그먼트 재편, ③ 가격대 중심 수요 양극화, ④ 수입차의 구조적 확대 및 지역 집중화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판매량 경쟁을 넘어, 가격 전략, 전동화 대응, 금융 구조, 지역 기반 유통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경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수석  
객원연구원

조성봉

김원태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mailto: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